

# ‘기업 회생’ 홈플러스 매각 추진... ‘동광주점’ 포함

기업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가 내년까지 동광주점을 포함한 5개 점포 우선 매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이후 임대 운영이나 재입점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매각 이후 고용 공백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에 동광주점을 포함한 유성점, 서수원점, 아람점, 진해점 등 5곳을 추가 매각할 예정이다.

이들 점포의 예상 매각대금은 약 4000억원으로, 홈플러스는 자산 현금화를 통해 회생채권 변제 재원과 운영자금을 마련해 경영 정상화에 나설 전망이다.

경영진, M&A 무산 후 자산 정리로 경영 정상화 구상

동광주점 폐점 시 직·간접 고용 200여명 타격 불가피

현재 동광주점은 매수자와 매매계약 체결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매각 뒤 협의 결과에 따라 임대 운영 또는 재입점이 가능한 상태로 알려졌다.

당초 동광주점은 홈플러스 자가 소유로 임대 점포 위주로 폐점하겠다는 계획에서 제외됐었지만, 최근 재정 악화로 인해 매각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점포 매각 후 임대 형식으로 운영할지가 매수자와의 협의 결과

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매각 대상 모든 점포가 폐점이라고 할 수 없다”며 “현재 홈플러스는 자금 확보가 절실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현금화할 수 있는 점포 5곳을 매각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최근 인수·합병(M&A)이 무산된 이후 회사 청산이 아니라 일부 자산을 정리해 기업 존속과 정상화를 목표로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매각 추진 역시 유동성 위기를 넘



동광주 홈플러스 전경

기고 영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또, 점포 매각 대금과 함께 올해 중 의 스프레드 부문을 매각해 회생채권 변제 자금을 마련하고 운영자금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홈플러스는 이번에 매각하겠다고 밝힌 5곳 외에 추가 점포도 ‘매각 후 재입점’을 전제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반면 적자 지속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임차 점포는 단계적으로 영업을 종료한다. 구체적으로 117개 점포 가운데 41개 점포를 순차적으로 폐점할 방침이다.

이처럼 홈플러스 동광주점의 매각이 현실화될 경우 동광주점에서 직·간접적으로 근무 중인 200여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민주노총 홈플러스 관계자는 “광주지역에 현재 동광주점, 광주하남점 두 곳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동광주점이 우선 매각 대상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자

직원들 사이 분위기가 많이 어수선했다”며 “언제든 매각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기는 했지만 당장 올해 현실화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자들에게 폐점에 관해 물어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일반적으로 본사에서 매각 추진을 진행 중이라고 발표해버린 상황이라 직원들은 거취를 정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한편, 법원은 채권단 의견을 참고해 회생계획안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회생계획안이 허가될 경우 홈플러스는 이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이른바 3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riozyb@gmail.com



송치영 (왼쪽)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임수택 수석부회장이 쿠팡사태 소상공인 피해 신고센터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 정부, ‘쿠팡 사태’ 소상공인 피해 조사 나선다

중기부·소상공인연합회, 피해 신고센터·지원 방안 마련

3370만명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쿠팡 사태에 대해 정부가 입점업체 피해 사실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기부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부터 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을 통해 쿠팡 사태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 사실 파악을 위해 ‘쿠팡 사태 소상공인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 사이에서 이른바 ‘탈팡’ (쿠팡 탈퇴)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쿠팡 입점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가 우려되자 피해 사실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

여진다.

최근 쿠팡 사태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신고센터에 글을 남기면 된다.

쿠팡 사태로 인해 소비자들의 정보 보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쿠팡 탈퇴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쿠팡 입점 소상공인 사이에서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동안 쿠팡 입점 소상공인의 피해 상황이나 애로를 신고할 전용 창구가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소상공인연합회와 협의해 쿠팡 입점 소상공인의 피해 현황 파악을 위한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동

시에 소상공인 대상 피해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쿠팡 사태 피해 신고센터’는 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에 개설되며,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은 누구나 피해 내용을 접수할 수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사(89곳) 소속 소상공인 대상으로 쿠팡 사태 관련 피해 조사를 진행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쿠팡 입점업체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들은 ‘쿠팡 사태 범정부TF’에 공유하여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riozyb@gmail.com

## 제네시스 G80 연식변경 모델 출시

2026 G80·G80 블랙...기본 사양·디자인 고급감 강화

제네시스가 8일 대형 세단 G80의 연식 변경 모델 ‘2026 G80’과 ‘2026 G80 블랙’을 출시했다.

신형 G80은 고객 의견을 반영해 만족도가 높은 사양 위주로 기본 사양에 포함하는 등 구성을 최적화한 것이 특징이다.

제네시스는 2026 G80에 운전자의 피로를 줄이고 주행 편의를 높이는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를 기본으로 적용하

고, 기본 사양으로 운영하던 항공 패키지 차량을 컨비니언스 패키지 구성 사양으로 변경해 전반적인 사양을 최적화했다.

또 인기 사양을 조합한 파플러 패키지 I·II를 하나로 통합해 고객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한다. 통합된 파플러 패키지는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I,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II, 빌트인 캠 패키지로 구성된다.

2026 G80은 제네시스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더욱 강화하는 디자인 요소가 적용됐다.

신규 외장 색상 ‘바트나 그레이’와 ‘세레스 블루’를 추가해 총 8종의 외장 색상을 운영하고, 스포티한 디자인의 신규 19인치 휠을 추가해 고객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또 차량 후면에 제네시스(GENESIS) 레터링을 제외한 모든 레터링을 제거해 한층 깔끔하고 모던한 후면 디자인을 구현했다.

블랙 색상을 바탕으로 절제된 고급감과 존재감을 갖춘 ‘2026 G80 블랙’은 빌트인 캠 패키지 등 고객 선호 사양이 기본화돼 상품 경쟁력이 더욱 향상됐다.

2026 G80의 판매 가격은 2.5 가솔린 터보 5978만원, 3.5 가솔린 터보 6628만원이며, 2026 G80 스포츠 패키지의 판매 가격은 2.5 가솔린 터보 6372만원, 3.5 가솔린 터보 7179만원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2026 G80 바트나 그레이

## 한전-LS전선, HVDC 케이블 실시간 진단 상용화 ‘맞손’

지중·해저케이블 ‘SFL-R’ 공동 사업화로 세계 시장 공략

한국전력이 자체 개발한 케이블 상태 판정 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세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LS전선과의 협력을 통해 지중·해저케이블 진단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본격적으로 상용화한다는 구상이다.

한전은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 기간 중 LS전선과 지중·해저케이블 상태 판정 기술 ‘SFL-R (Smart Fault Locator-Real

Time)’의 사업화 협력 및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동철 한전 사장과 구분규 LS전선 사장을 비롯한 양사 경영진이 참석했다.

SFL-R은 한전이 독자 개발한 실시간 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 기간 중 LS전선과 지중·해저케이블 상태 판정 기술 ‘SFL-R (Smart Fault Locator-Real

이상 구간을 판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1·3 HVDC, 북방진-고덕 HVDC 등에서 운영 중인 세계 유일의 장거리 HVDC 실시간 전류 신호 측정 기반 케이블 모니터링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양사는 향후 LS전선의 해저케이블 임찰 사업에 SFL-R이 적용된 통합 자산관리 플랫폼과 진단 솔루션을 공동으로 제안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기술 협력을 넘어 공동 사업화 모델을 구축해 국가 전력·케이블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www.hdhitec.co.kr

HYUNDAI HI-TEC Industry

신뢰와 기술을 토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는

Global Top Mobility Body Maker 현대하이텍

1991년에 설립된 현대하이텍은 Mobility Body Maker로 인화되던, 근면성실, 주인의식이라는 사훈과 품질향상, 기술혁신, 신용확대 라는 경영방침 아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현대하이텍은 Global Top Mobility Body Maker로 발전시키기 위해 그동안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가 되기위해 최선을 다할것이며, 임직원을 존중하고 함께하는 경영을 추구하여 보다 비전있고 가치있는 회사가 되도록 전진하겠습니다.

(주)현대하이텍 · (주)넥스오트 회장 김용구

고객과의 신뢰 강화와 ESG 경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현대하이텍 본사

현대하이텍 제2공장 기립부설연구소

제일사 · 주식회사 넥스오트

HD (주)현대하이텍

HYUNDAI HI-TEC Industry Co., Ltd.

· 본사/제1공장/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16번로 47 (오산동) · 제2공장/부연구소: 광주 광산구 평동산5번초로 81 · TEL: 062-953-2240 · FAX: 062-952-2186 · e-mail: kg24@daum.net · Homepage: www.hdhitec.co.kr